

특고압 논란 해결도 안 됐는데 ‘또 승인’

‘삼정동 데이터센터’ 공사 분쟁 불가피

부천시, 유관부서와 사전 논의 안해
특고압 지하 매립 통해 공급할 예정
“민원 발생 시 문제 적극 해결” 밝혀

부천시 중·상동 지하에 매설되는 특고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정동 지하에 또 특고압 전력 공급이 예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특고압 전력이 공급돼야 할 삼정동 데이터센터 신축공사를 유관부서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5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3-15, 16번지(구, 동아베스틱) 2필지 1만 3387㎡에 퍼시픽 피치에프브이(주)가 건축면적 7965㎡, 연면적 7만 1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허가받아 건축 중이다.

삼정동에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지난 2021년 5월 일반전기공사업체인 A사가 한국전력 부평지사과 계약을 맺고 현재 특고압을 지하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지만, 향후 부천시 도로 관련 사업부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곳 데이터센터로 특고압을 공급하기 위한 지중 선로 매설공사는 부평구간 3km, 부천구간 3.2km로 총 6.2km에 달한다.

이 선로는 인천삼산중학교-인천영선고등학교를 지나 부천구간인 상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피치에프브이 데이터센터가 건축 중이다. 사진=김용권 기자

트-부천체육관-부천초등학교-아트벤처사거리-삼정교 사거리 등을 지난 예정이다.

또한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 451㎡, 건축면적 5769㎡, 연면적 2만 6080㎡ 규모의 내동 데이터센터 예정지가 지난 2023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착공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고압 사용으로 전자파 등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부천시는 민원을 대비한 행정 논의조차 없이 건축허가부터 내줘 향후 건축주들과 분쟁도 우려된다.

상동지역 주민 B(60)씨는 “데이터센터는 폐수 발생은 물론 고압 전력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데이터센터를 일반 건물처럼 건축허가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천시 인근 도시인 고양시도 최근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직권취소에 나서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 C(34)씨는 “아파트와 학교를 지나는 특고압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전자파가 암 등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

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부천시가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바란다. 허가할 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힘·마석구)은 “한국전력의 34만 5000V에 해당하는 특고압 송전선 전력구 매설공사와 GTX-B노선 관련 특고압이 논란 중인데 데이터센터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민간데이터센터 2곳에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고압 도로 굴착 하가는 안 된다”라며 “즉시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안해하는 주민들과 적극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일반 건물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한전과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데이터센터 준공 전까지 특고압 등 민원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들은 특고압 선로 개설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 측은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반발에 대해 지난 8일 이동한 고양시장이 주민 대표들과 만남을 갖고,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가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와 데이터센터 이전에 대한 부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권 기자

부동산 AD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서해 조망권에 품격 갖춘 아파트... 평택에 상륙

남향 위주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 구성
‘초품아’ 입지에 교통인프라 최대 강점
5월 7일부터 특별공급으로 청약 시작

평택시 화양지구 6-2블록에 위치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본격 분양에 나섰다.

동문건설은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산 75-24번지 일원에 주택전시관을 오픈하고,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분양 관련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전시관 오픈 3일 간 열리는 경품이벤트는 선착순 라면 증정권 상당 고대 대상 추첨을 통한 LG냉장고, TV, 다이스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53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동문 디 이스트는 다음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6일,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동문건설 분양 관계자는 “남향 위주의 설계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알파룸 공간을 활용한 클린룸 특화평면을 유상 옵션으로 제공한다”며 “서해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화양지구 내 중심 입지에 자리해 도로보 복합공공청사(예정)와 종합병원(예정)을 갈 수 있으며, 단지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조감도. 동문건설 제공

바로 앞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향후 ‘초품아’ 입지를 누릴 수 있다.

동문 디 이스트의 최대 강점은 교통입지다. 먼저 단지 인근에 안중역(KTX 직결 예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안중대로(예정)가 위치해 경부고속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예정)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문건설은 지난 19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높은 미래가치와 입지, 사업에 대해 알렸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수백명의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몰려 단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서평택 중심 입지인 화양지구에 위치한 동문 디 이스트는 약 279만㎡ 부지에 2만여 가구, 5만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이다.

“신체 자유의 권리 보장... 성 평등한 파주시를 원한다”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발대식

성매매집결지 폐쇄 위해 자발적 구성
시민들 동참·경찰의 강력 단속 호소

파주시가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4일 오전 파주읍 문화극장(파주읍 연풍5길 32)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발대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이하 ‘클리어링’)은 성매매 근절,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 아이들의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며 2024년 2월, 파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클리어링은 선언문을 통해 성매매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가 아닌 성 착취가 발생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몸을 매매하는 업주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주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기 위해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발대식을 개최했다. 파주시 제공

또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성 착취가 누군가의 생계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다짐을 표명했다.

발대식에 이어 클리어링과 함께하는 이동 시장실에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호소문이 배포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억측과 오해, 음해와 루머가 조장되고 있다”라며 “파주시장 호소문을 통해 의도적인 오해와 루머를 바로잡는 ‘사실’과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담긴 ‘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으로 사람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성 착취가 발생하는 불법행위이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도록 시민들의 동참과 경찰 당국의 강력 단속,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호소했다.

클리어링 공동대표 고윤정 학부모는 “시민들이 점차 모이기 시작하는 데는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클리어링은 그 누구도 성 착취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성 착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성매매집결지가 하루빨리 폐쇄될 수 있게 열심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광명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자족도시 만들기 ‘온힘’

2024 상반기 통장협의회장 간담회 개최

현장 탐방·행정구역 조정 건 등 논의



광명시는 지난 24일 18개 통장협의회장이 모여 상반기 통장협의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지난 24일 18개 동 통장협의회장이 모인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통장협의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장 현장 탐방, 통장 워크숍, 행정구역 조정 등 안건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했다. 특히,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시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통장 현장 탐방에 대해 많은 의견과 질문들이 이어졌다.

박승원 시장은 “통장 현장 탐방은 광명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장협의회장들은 안건 논의에 이어 ▲앞서가는 지역활동가로 성장하는 스마트 통장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통장 ▲주민과의 소통 협력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통장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과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제안과 토의가 이어졌다.

오진훈 광명5동 통장협의회장은 “시에서 목감천변을 잘 조성해 줘서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힐링 명소가 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방문해 지역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원규 기자

화성시, 숲속 놀이로 아이들 오감을 깨우다

‘화성형 유아숲 프로그램’ 대상 확대 운영

이용 연령 3세 이상→2세 이상 확대
가족 참여, 자연 체험 기회에 큰 호응

화성시가 ‘화성형 유아숲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만 2세 유아까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성형 유아숲 프로그램은 유아 대상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요를 충족하고자 시가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총 4만 1546명의 유아 및 가족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부터는 이용 연령이 기존 만3세 이상에서 만 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유아숲체험원은 ▲향남 유아숲체험원(행정리) ▲구봉산 유아숲체험원(병점동) ▲알콩달콩 유아숲(석우동) ▲남양 유아숲체험원(남양리) ▲봉담 유아숲체험원(동화리) ▲선남산 유아숲체험원(영전동) ▲동탄 호수공원 유아숲체험원(송동) ▲신외리 웃음만발 놀이숲(신외리) 등 8개소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오감을 깨우는 ▲유아숲 체험원의 다양한 자연물을 알아보기 위한 ‘너는 가봤나? 보물숲’ ▲숲에서 나뭇잎을 가져와 만드는 ‘나의 나무 만들기’ ▲산책하며 만나는 곤충 찾기 게임 ‘숲 산책하기’ 등



화성형 유아숲 프로그램 모습.

화성시 제공

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화성시 산림휴양과 또는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유아숲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연과 친밀하게 호흡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족의 삶을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광주시,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실무자 교육 실시

광주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해 및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백명희 서울시복지재단 팀장은 사회적고립가구센터에서 오랫동안 현장 업무 등으로 터득한 경험과 대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이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과정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사례 나눔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또,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장 대응부터 위기 대응 시스템까지 구축한 서울시의 정책과 실천 사례 공유했다. 강연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접근과 대응 방식, 광주시 공동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호 기자